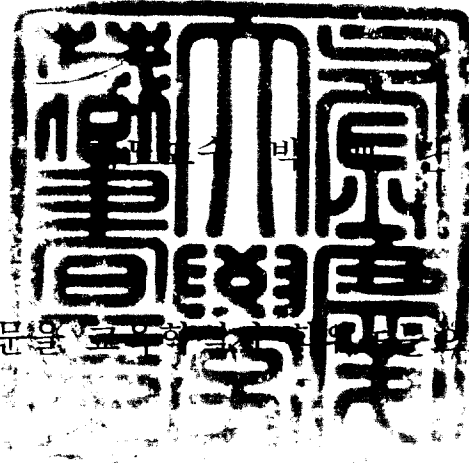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의
문화 교수 분석 및 학생들의
인식 연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차 진 회

차진회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6년 1월 일

주 심 영문학박사 윤 희 수



위 원 교육학박사 조 윤 경



위 원 교육학박사 박 매 란



<목 차>

영문 초록	v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4
2. 연구의 목적과 과제	3
3. 연구의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6
1. 시대별로 본 영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	6
1.1 1950년대~1960년대	6
1.2 1970년대~1980년대	7
1.3 1990년대~현재	9
III. 연구방법	11
1. 연구 대상 및 기간	11
1.1 연구 대상	11
1.2 자료 수집 기간	11
2. 연구 도구	12
3. 자료 수집 절차	12

4. 자료 분석	13
IV. 결과 및 논의	14
1.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문화 내용 분석	14
1.1 A교과서 분석 결과	16
1.2 B교과서 분석 결과	18
1.3 C교과서 분석 결과	21
1.4 D교과서 분석 결과	22
1.5 E교과서 분석 결과	24
2. 문화 지도 방법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분석	28
2.1 문화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9
2.2 문화 내용에 대한 인식	29
2.3 문화 학습 활동의 선호도 분석	31
2.4 문화 학습 지도 방법 선호도	34
2.5 단위 외에서 제시된 문화적 내용 분석	38
3. 평균비교를 위한 설문문항과 학교 간 유의관계 분석 결과	40
3.1 학교 간 평균 분산 분석	41
V. 결론과 제언	44

참고문헌	47
부록	52

〈표 목 차〉

<표 1> 단원 내·외 문화 내용 제시 여부	14
<표 2> 단원 내 문화 내용 제시 방법 및 횟수	15
<표 3> A교과서의 단원 내 문화 내용 분석	16
<표 4> B교과서의 단원 내 문화 내용 분석	18
<표 5> C교과서의 단원 내 문화 내용 분석	21
<표 6> D교과서의 단원 내 문화 내용 분석	23
<표 7> E교과서의 단원 내 문화 내용 분석	24
<표 8> 영미 문화를 배우는 것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및 인식	29
<표 9>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영미 문화에 관한 내용에 대한 태도 및 인식	30
<표 10> 문화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양상에 대한 선호도 분석	32
<표 11> 교실 수업에서 문화적 내용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선호도 분석	35~37
<표 12> 문화이해에 도움이 되는 교과서의 부록에 제시하는 문화적 내용에 대한 선호도 분석	39
<표 13> 학교 간 학생들의 인식 차이 분석	41
<표 14> 사후 검증 분석 결과	41~42

Analysis of the Cultural Components of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and Students' Perceptions of Teaching Culture

Cha, Jin-Hw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rst find out how Korean high school students in an EFL context realize the necessity of learning English culture. Secondly, it is to do research how cultural contents in Korean English textbooks are presented, how well the preference to the forms of cultural contents in the textbooks by students is reflected and what type of culture learning methods they prefer.

The survey was conducted to the 356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in five high schools in Busan, Korea by asking them to answer a questionnaire designed to examine their attitudes on learning English culture. They responded that they felt a strong necessity to have to learn English culture in and out of classroom.

However, they considered the textbooks to lack of cultural contents enough to play a major role as a method to teach English culture to Korean students.

Therefore on developing the 8th National Curriculum a drastic change of putting various kinds of culture corners and contents to the textbooks is expected to happen. Additionally, students' response to the questionnaire was that they wanted to learn English culture through

listening and reading activities. Among ways of teaching culture in a Korean classroom are singing along with American popular songs and folk songs in olden days, learning culture by reading comic books with humors, learning English riddles, reading English newspapers or magazines, using audio and visual facilities to know English culture, being introduced to foreigners to learn their culture directly, experiencing English culture by sending an e-mail or writing a letter, exposing yourself to the natural circumstances of speaking English while watching English movies.

This research was not able to deal with all 12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currently used in high schools around the country, and did not intend to get teachers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to find out their opinions on teaching culture and helping students to learn English culture in a better way. However, I hope many researches will be done on the same kind of topic with teachers as important participan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의사소통중심교수법은 외국어교육에서 패러다임의 변화와 사회언어학적 개념을 새롭게 인식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을 획득하는 것이 외국어 교수 및 학습에서 중요한 목적이 되었고 동시에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을 획득함에 있어서 사회언어학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지식은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Bachman, 1990; Canale, 1983; Hymes, 1972; Savignon, 1983). 또한 인간은 목표언어가 사용되는 언어적 환경에 적합한 규칙과 언어 사용자간 구어적, 비구어적 의사소통의 다양한 측면과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목표 문화(target language culture)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때에만 목표 언어로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서헌수 · 박매란, 2003)는 주장을 고려해볼 때 문화지도는 영어교육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 내 영어과의 목표가운데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의 습득과 더불어서 영어권 국가의 문화와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이 명시되어 있다. 외국어로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과 외국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제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육부, 2000)에도 문화교육에 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에서 영어를 배우므로, 다언어 공동체인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상황과는 언어 환경이 다르지만,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을 길러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게 한다는 실용적 목적과 언어 교육을 통한 문화 교육으로 개인적 소양을 높이고 미래 사회에 대비한다는 교양적 목적은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 7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가 실질적인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 제 7차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된 이후 교육과정 내용상의 문제가 지속적인 쟁점이 되어 왔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그간 단계적으로 시행해온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교과에 대한 새로운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고 7차 교육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이의갑, 2005).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교육과정 내용영역에서 “목표에 제시된 ‘문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화지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에 의해 그 방법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 수시 개정체제 도입 방침에 따라 수정 보완하게 될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술되었으면 한다.

뿐만 아니라 영어권 국가에서 체류경험이 많지 않거나 전무한 한국인 영어교사가 영미문화를 지도하고 있는 교실 상황에서 영미문화교육의 도구로 영어 교과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영어 교과서가 중심이 되는 학습 환경에서 영어 교과서는 수업의 내용과 효과 면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주며, 또한 학생들이 습득하게 되는 영어와 영어권 문화를 이해하는 방향을 결정한다(박영신, 2004)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연구의 목적과 과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문화지도란과 부록에 제시되어 있는 문화내용 및 각 단원의 학습내용의 구성이 학생들의 문화이해 학습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발 및 제시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EFL 상황에서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배워야 하는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문화지도방법 이외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문화지도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영미문화교육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영어교과서 내에 영미문화를 집중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제작된 「문화지도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이 문화지도란이 해당 코너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교실에서 언어와 문화를 결합시켜 지도하게 될 영어교사들이 학생중심 즉, 수요자중심 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문화지도방법을 교과서와 교과서 외적인 시각, 이 두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과제 1. 고등학교 1학년 5종 교과서의 문화지도란과 부록의 문화내용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는가? 제시되어 있다면 해당 교과서의 각각의 코너들의 종류와 성격 및 내용은 어떠한가?

과제 2.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영미문화 지도방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 중심의 효과적인 문화지도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영어 교과서내의 문화지도란을 분석하고 영미 문화 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을 연구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세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7차 교육과정의 12종 교과서 가운데 5종의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설문조사의 대상이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아니므로 설문을 직접 실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설문조사의 의도를 설명하고 문항기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셋째, 설문조사의 대상을 부산시내 소재 5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으로만 구성하였으므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영미문화를 지도하는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제 8차 교육과정 편성과정에서 문화지도 영역의 목표를 선정함에 있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영어교과서를 개발할 때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시대별로 본 영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

영어교육에서 문화 교육 연구가 시작된 1950년대에서 현재까지 문화 교육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영어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영미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병행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동의될 언어감에 따라 효과적인 문화 지도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시대별로 영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온 방법과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1 1950년대~1960년대

이 시대는 영어교육에서 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문화지도방법이나 문화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고, 주로 외국어 교육에서 언어적 기술교육에서 나아가 영미 문화권 사람들의 문화를 교육하는 문화이해 교육이 병행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시기로 보인다.

Fries(1955:14)는 영미 문화권 사람들의 생활방식, 가치체계, 습관 등에 관한 문화이해 교육은 영어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60년대 들어서 Brooks(1964:88-89)는 문화에 대한 지도가 없는 언어 교육이 무의미해지며, 외국어에 대한 개념을 모국어의 개념에 관련지어 의미를 잘못 파악할 수도 있다며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문화와 언어는 밀접한 관계

를 맺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한 나라의 언어 습득은 그 나라의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Lado(1964)는 외국어 학습자는 언어 학습에서 목표문화도 배워야 함을 시사하였다. Osgood의 주장을 인용한 Rivers(1968:319)는 목표어를 구어로 또는 문어로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는 반드시 그 목표어의 바탕에 깔린 가치관, 의식구조 등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Rivers와 같은 맥락으로 Dewey(1968)는 외국어교육에서 언어적 기술, 즉 문법이나 어휘 표현 등을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 언어에 해당하는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한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문화지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학자들은 문화연구가 시작된 때부터 목표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표어 문화의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2 1970년대~1980년대

1970년대부터는 1950년대의 영어교육에 있어서 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을 시초로 하여 이 분야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70년대에는 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더불어 문화교육의 방법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80년대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문화연구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 영어교육의 목표를 궁극적으로는 원활한 의사소통에 두고 언어의 네 가지 기능적인 측면 이외에도 문화적인 인식을 제일 먼저 제시함으로써 결국 외국어 교육은 문화이해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한 학자는 Ide(1978:21)였다. 국내에서는 김덕기(1979)가 외국어 교수에 있어서 문화교

육이 제외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문자 교육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진정한 외국어 교수는 일반적인 언어기능 외에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문화교육이 병행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Byram(1980)은 언어 교육의 두 가지 면은, 유용한 언어적 기술을 지도하는 것과 다른 문화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고 고무하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언어교육에서 문화 학습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특히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들이 자기문화의 방식으로 다른 문화를 보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려면 언어기술만큼이나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Hammerley(1986)는 외국어 교육의 목표를 의사소통과 문화의 이해로 정의하면서 문화이해는 목표어 문화, 자국의 문화, 그리고 일반 문화의 이해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즉, 외국어 교육은 네 가지 기능 지도와 더불어 외국문화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 즉 문화지도에 대한 고려가 병행될 때 이상적인 외국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에 문화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던 Byram은 1989년 연구에서 진정한 의미의 영어 학습은 영어가 사용되고 있는 문화적 상황의 이해와 함께 이루어진다고 문화 학습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영어 사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호작용에 관한 사회적 규칙을 모르면 언어의 표면구조가 같아도 다른 사회적 의미로 전달되므로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는 언어라는 도구로 표현되는 관계이므로 외국어 교육은 문화를 제대로 가르쳐야 완전한 교육이 되며, 영어 교육은 유용한 언어적 기술을 지도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고 이해하도록 고무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해에 Wiseman(1989)은 문화지식은 다른 문화의 의사소통 규칙들과 기준들을 이해하는데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 사람의 행동을 이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면서 문화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상황, 문장, 단어의 언어적 의미와 문화적 의미 모두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1.3 1990년대~현재

1990년대부터는 국내에서도 문화지도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왕성하게 발표되었다.

최용재(1998)는 외국문화의 이해는 현대 외국어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 중 하나로서 언어 지식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외국어 교육과정에 문화소통과 관련된 문화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 기능적 지도와 더불어 외국문화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포함된 문화 지도에 대한 고려가 병행될 때만이 이상적인 외국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홍수(1999)는 의사소통은 최소한 두 사람 이상 사이에 언어 또는 비언어적인 기호를 사용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유통하는 상호작용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이해기능과 표현기능의 통합능력을 가져야 비로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더불어 사회문화, 생활양식, 사회적 규범, 대화자의 의도를 아는 학습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의사소통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문화적 다양성으로 유발되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따라서 문화 간 의사소통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하였다.

이완기와 차경환(1999: 327-328)은 문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들은 영어 사용자들의 문화에 관한 고려 없이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면, 영어와 영미문화를 한국적 사고방식과 가치관으

로만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영미 문화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피상적인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영어교육에서 문화적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문화와 영미 문화를 상호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외에서는 Stem(1992)은 언어와 문화의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토대로 하여 언어와 문화의 동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Brown(1994:165)은 문화란 행동의 지각 양식의 결합체로서 언어와 분리되면 각각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므로 특히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언어와 문화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다른 연구에서 외국어 교육의 목표는 ‘목표어에 대한 단순한 언어의 4가지 기능을 습득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 문화와 직접 또는 간접 접촉을 통하여 목표 문화를 경험하여 문화적 편견과 고정관념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외국문화를 배우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상과 같이 영어교육에 있어서 문화 교육의 중요성은 문화 지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이후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어 교육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문화 영역을 지도함에 있어서 교사가 학생 중심의 문화 교육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연구 대상 및 기간, 연구 도구, 자료 수집 절차, 자료 분석을 기술하기로 한다.

1. 연구 대상 및 기간

1.1 연구 대상

현행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High School English) 12종 가운데 부산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채택률이 높은 5종 교과서(박매란·서강옥, 2003)의 문화지도란과 해당 5종 교과서를 사용하는 5개 인문계 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356명(남학생 117명, 여학생 2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2 자료 수집 기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5종 교과서를 수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설문조사를 완료하기까지의 기간은 2005년 3월 초순에서 6월 말까지였으며, 부산 소재 5개 인문계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한 현장설문조사의 기간은 2005년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총 6일간 실시하였다.

2. 연구 도구

중학교 영어교과서에서 문화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 분류한 분석기준표(서현수·박매란, 2003)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과 관련된 문화적 내용이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 제시 유형과 지도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한 설문지(서현수·박매란, 2003)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와 고등학생의 실정에 맞추어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3. 자료 수집 절차

첫 번째 연구대상인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5종을 수집한 후 각 교과서에 별도의 문화지도란과 교과서 마지막 부록에 문화지도를 위한 개별 코너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문화지도란과 부록의 문화지도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두 번째 연구대상인 부산 소재 5개 인문계 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3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설문지 작성 후 각 학교당 두 학급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기로 하고 학교별 학급당 인원수의 차이를 감안하여 한 학교에서 최대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후 5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1학년 2개 학급을 대상으로 영어과 담당선생님께 수업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협조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총 6일에 걸쳐 5개 학교의 35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한 설문지는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설문조사 결과는 SPSS 11.5 버전을 이용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설문지 각 문항별 빈도를 분석하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학교별 분석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문화 내용 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부산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High School English)를 조사한바 총 12종중에서 현장에서 많이 채택되어 사용하고 있는 5종을 선정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의 대상인 영어 교과서 목록 및 해당 학교 목록 그리고 각 교과서에서 문화지도란과 부록의 문화지도 내용의 유무를 나타낸 표이다.

<표 1> 단원 내·외 문화 교수 내용 제시 여부

교과서	해당학교	문화지도란 유무	부록의 문화지도 내용 유무
A교과서	S 고교	유	무
B교과서	D 고교	유	무
C교과서	N 고교	유	무
D교과서	B 고교	유	유
E교과서	Y 고교	유	유

새로운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에 맞춰 본문 외에도 문화교육을 위해 별도로 다루고 있는 문화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본문 외라 함은 듣기, 말하기, 쓰기, 발음, 어휘, 연습문제 등을 제외한 순수하게 문화 교육만을 위해 마련된 별도의 문화 소개 및 지도란을 의미

한다.

다음은 각 교과서별로 본문 외에서도 문화교육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코너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문화내용의 소개 방법 및 빈도이다.

<표 2> 단위 내 문화 내용 제시 방법 및 횟수

순 서	교과서	문화지도란의 이름	제시 횟수	총 단 원수
1	A교과서	<Language Note> <Culture Note> <Culture Tip>	6	12
2	B교과서	<PROJECT FILE>이라는 코너가 PART 1 · II의 끝에 제시	2	12
3	C교과서	매 단위 끝에 정해진 고정란의 이름 없이 다양한 주제로 제시	12	12
4	D교과서	<ENGLISH FOR FUN>을 통해 다양한 주제로 제시	12	12
5	E교과서	매 단위 Language Check의 <Culture Tip> 코너를 통해 규칙적으로 제시	12	12

<표 2>에서 보듯이 규칙적으로 문화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는 단 3종이고 문화 내용 제시 횟수가 총 단위 수를 넘지 못하고 있는 교과서가 2종이나 된다. 그러나 그 빈도와는 별개로 과거의 교과서에 비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중음악이나 영화, 만화, 유머, 수수께끼, 속담, 퍼즐 등을 통해 그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만한 참신하고 다양한 현대적 소재와 방법들을 다룸으로써 7차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목표인 문화교육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여 교재를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1.1 A교과서 분석 결과

A교과서의 경우 문화지도란을 위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Language Note> · <Culture Note> · <Culture Tip>이라는 세 가지 코너를 통해 규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Additional Practice(보충)」란의 마지막 코너인 문화지도란은 각 과의 소재나 주요 문법 지도 목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재로 해당 코너를 구성하였다. 영어의 문법적, 통사적 쓰임을 주로 설명한 코너인 <Language Note>, 특정 영미 문화적 소재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 코너인 <Culture Note>와 상식으로 알아두면 미국인과의 자연스러운 대화 상황에서 재치를 발휘할 수 있는 ‘팁(tip)’을 주는 <Culture Tip>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A교과서의 문화지도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표이다.

<표 3> A교과서의 단원 내 문화 내용 분석

Lessons	문화지도란 이름과 내용
Lesson 2	<Culture Tip>: 199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신생아 이름의 애칭을 써보는 활동
Lesson 5	<Language Note>: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국토가 광활하여 날씨 또한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한국의 날씨에 대해 물으면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다. 즉, 자신의 출신지에 따라 우리나라의 날씨에 대한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문화 지도 내용
Lesson 6	<Culture Note>: 미국의 ‘음주 운전을 반대하는 학생 단체(SADD)’는 음주 운전자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음주 운전 사고에 의해 희생된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만든 ‘음주 운전을 반대하는 어머니 단체(MADD)’를 모델로 하여 생겼다는 문화 지도 내용
Lesson 9	<Language Note>: 지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영어 속담을

	음미해 보는 활동
Lesson 10	<Language Note>: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어려운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일을 하여 받은 급료를 가지고 자신에게 필요한 생활 용품이나 옷 등을 구입한다. 일부는 대학 진학 등을 위해 저축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을 통해 학생들은 경제적 독립심을 기르게 된다는 문화 지도 내용
Lesson 11	<Language Note>: 훌륭한 연설문은 전달하는 힘이 강하여 오랫동안 대화나 책 등에서 인용된다. 흔히 인용되는 영어 연설 문구를 제시한 문화 지도 내용

6과 중 총 4과에 걸쳐서 문화 내용이 제시된 <Language Note>는 해당 코너의 이름만으로는 문화분석란으로 보이지 않으나 문화관련 소재를 제시한 과(5과, 9과, 10과, 11과)가 있어서 이러한 과에 한해서는 문화지도란에 포함시켰다. 오히려 문화지도란의 성격이 짙은 이 네 과는 다른 두 가지 코너인 <Culture Tip>과 <Culture Note> 코너에 포함시키는 것이 코너의 이름과 조화를 이루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Language Note>에 제시된 문화 내용의 소재와 주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미국 문화를 지도함에 있어서 교과서 내 코너를 통해서 참신한 문화지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총 1회 제시된 <Culture Tip> 코너는 해당과의 소재를 적절히 활용하여, 유행하는 영어이름을 상식으로 알려주는 코너이다. 해당과의 본문에서 유사한 내용을 다루었지만 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름을 통해서 미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인기 있는 이름으로 꼽힌 예를 통해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기독교의 정신과 문화가 깃들여져 있으며 이로 인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종교적 의식세계를 보여주는 교육이 되는

것이다.

총 1회 제시된 <Culture Note> 코너는 'auto safety' 라는 소재를 사용한 문화지도란으로써 미국인들은 어릴 적부터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안전의식이 발달하여 코너에 제시된 것과 같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교통안전 보호 단체를 결성하였다고 소개한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의 설립 취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자신의 이익을 자기 스스로 찾아서 지키는 것은 타인이 아닌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진 미국인들의 자주의식도 소개한다.

문화(culture)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미국문화를 소개한 <Culture Tip>코너와 <Culture Note>코너는 교과서에서 제시한 횟수가 1회에 그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Language Note>가 두 문화지도란을 보충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교과서는 제 7차 교육과정의 문화지도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제작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코너의 주제와 소재의 다양성과 대비하여 제시된 내용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일방적인 사실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에 그쳐 학생들이 직접 문화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것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1.2 B교과서 분석 결과

B교과서의 경우 PROJECT FILE 이라는 코너가 있어 PART I · II의 끝에 문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표 4> B교과서의 단원 내 문화 내용 분석

PROJECT FILE I	▶ 노래 가사 바꾸기
-------------------	-------------

PROJECT
FILE II

▶ 영미시를 산문으로 이야기하기

PROJECT FILE I에서는 팝송 한 곡을 들어보고 불러본 후 해당 노래의 가사 대신에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영어 가사를 넣어 불러 보도록 한다.

이어지는 활동으로 모둠별로 좋아하는 팝송이나 가요, 동요 등의 노래 중에서 한 곡을 고른 다음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로 가사를 바꾸어 함께 노래를 불러보도록 한다. 팝송을 듣고 가사를 읊미하고 따라 부르는 학습 방법은 문화 지도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어를 학습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영어 학습 방법가운데 하나이다. 만약 해당 교과서의 문화지도란에 팝송 한 곡만 실려 있다면 그것은 영미 문화를 학습하는 코너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코너에서는 해당 곡의 가사대신에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는 가사를 넣어서 불러봄으로써 가사의 내용을 이해하고, 동시에 영어 노래나 시에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같은 것을 스스로 파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는 모둠활동을 통해서 각 조에서 좋아하는 팝송이나 가요, 동요와 같은 곡에다가 조별로 구상하여 만든 생일 축하노래의 가사를 붙여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서도 모둠 구성원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자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선택하고 가사도 만들어내는 창작활동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영미문화권의 노래를 찾아보도록 하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리고 가사를 창작하는 활동을 하는 가운데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생각해보고, 사전에 참조하여 적절한 것을 골라내는 활동을 하게 하여 영어 어휘력과 표현력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PROJECT FILE II에서는 영미시를 감상해 본 후 해당 시의 일부를 이

야기 형태로 풀어 쓴 것에 이어서 모듈별로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여 발표해 보도록 한다.

두 번째로는 모듈별로 좋아하는 영미시 한 편을 고른 다음, 산문으로 영작을 하여 이야기를 완성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영미시를 산문으로 이야기해보는 것은 영미시를 감상하고 또한 공부하는 방법으로 매우 바람직한 활동이 아닌가 생각한다. 함축된 언어인 시적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매우 도전적인 과업이 아닐 수 없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미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 바로 이야기 형태로 즉, 쉬운 말로 풀어쓰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시를 이해하고 감상한 결과를 모듈 안에서 서로 교환하여 보면 더욱 더 즐거운 영미시 감상시간이 될 것이다.

그 후 좋아하는 영미시 한편을 고른 다음에 첫 번째 활동에 제시된 것과 같이 산문으로 영작을 하여 이야기를 완성하고 발표해 보도록 하면서 시대별로 다양한 영미시와 작가를 접하면서 시적 언어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B교과서는 분석 대상 교과서 가운데 문화지도란의 제시횟수가 2회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1회에 제시된 분량은 2쪽으로 분석 대상 교과서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개인 및 모듈활동을 유도하여 직접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영미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자신의 영미 문화 및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노래나 시를 직접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교사가 몇 가지를 찾아서 수업 시간에 제시해주면 조별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학습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1.3 C교과서 분석 결과

C교과서의 경우 매 단원 끝에 정해진 고정란의 이름 없이 다양한 주제로 문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표 5> C교과서의 단원 내 문화 내용 분석

Lessons	문화지도란의 이름
Lesson 1	Language in today's computer world
Lesson 2	Do you know about Internet Time?
Lesson 3	Teens and Fashion
Lesson 4	<i>Mushroom</i> written and sung by Dharmika
Lesson 5	Let's Make Kimchi!
Lesson 6	Famous disabled people
Lesson 7	Using logic can make you richer? Maybe.
Lesson 8	Rome in Sayings!
Lesson 9	Everyone Wants to Feel Loved
Lesson 10	Will the results of the Human genome Project be used for good or bad purposes? The answer is in our hands.
Lesson 11	Differ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
Lesson 12	Change the World by an Anglican bishop

C교과서는 매 과의 마지막에 표에 제시된 것과 같이 문화지도란의 성격이 짙은 코너가 규칙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위에 제시된 내용이 각 과의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이라 한 과를 학습하고 나서 학생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내용을 정리하기에 좋을 것 같다. 또한 제시된 내용들이 다양한 주제로 짜여 있고 편집과 화보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할 것 같다. 그러나 코너명이 문화지도란으로 명명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특정한 코너명이 붙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 지도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해당 교과서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문화지도란에 가장 가까워 보이는 구성이 바로 이 부분이었으므로 이 부분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 교과서의 문화지도란은 모든 과에서 문화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그 제시한 횟수와 1쪽을 차지하는 분량에 비해서 문화 지도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문화지도 방법을 안내하거나 지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사가 이 코너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문화지도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C교과서의 문화코너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교사는 학생들과 제시된 내용을 한 번 읽어보면서 머리를 식히는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문화지도란이 없는 해당 교과서의 경우에는 교사가 이 부분을 잘 활용하여 코너에서 제시된 주제나 소재를 활용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문화지도방법을 연구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 D교과서 분석 결과

D교과서의 경우 ENGLISH FOR FUN이라는 코너가 매 과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D교과서의 ENGLISH FOR FUN은 다른 교과서와 비교하였을 때 문화지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나 문화지도에 응용할 수 있는 활동과 게임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 지도 내용은 교과서 외의 곳에서 찾아오고 문화 지도 방법은 이 코너에 제시된 것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표 6> D교과서의 단원 내 문화 내용 분석

Lessons	본문의 문화지도란 내용	부록의 문화지도 내용
Lesson 1	Making Friends	experience와 관련된 quotes
Lesson 2	Humorous Stories	food와 관련된 quotes
Lesson 3	Bingo!	love에 관련된 quotes
Lesson 4	Funny Riddles	courage에 관련된 quotes
Lesson 5	Noun Game	music에 관련된 quotes
Lesson 6	Crossword Puzzle	travel에 관련된 quotes
Lesson 7	English Proverbs	animals에 관련된 quotes
Lesson 8	Pop song: <i>Hero</i> by Mariah Carey	advertisements에 관련된 quotes
Lesson 9	Opinion Polls	thought에 관련된 quotes
Lesson 10	Speed Quiz	sports에 관련된 quotes
Lesson 11	Story-Relay	effort에 관련된 quotes
Lesson 12	Poem: <i>Stopping by on a snowy evening</i> by Robert Frost	clothes에 관련된 quotes

D교과서의 문화지도란은 주로 게임 및 모둠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팝송과 시가 각각 하나씩 제시되어 있다. 문화지도란에 제시되어 있는 게임과 놀이의 종류가 다양하여 교과서 본문 내용을 학습한 후에 쉬어가면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8과와 12과에서는 각각 유명한 팝송과 영시를 제시하고 있어서 노래와 시를 통한 영미 문화 학습과 감상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 두 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게임, 퍼즐 및 퀴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문화코너가 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나 이 두 가지 활동을 통하여 노래와 시 속에 감추어진 영미 문화와 영어 표현을 재미있게 익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록의 문화지도 내용은 QUOTES USING KEY WORDS라는 이름으로 각 과의 주제와 관련된 인용문을 나열하고 있다. 특정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인용문이나 속담 등을 주제별로 정리해 놓았으므로 학습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인용문사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매 과를 정리하면서 각 과의 주제와 관련된 인용문을 공부한 후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은 외우게 하거나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영작문에 활용해 보도록 하는 과제를 낸다면 부록의 문화지도 내용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1.5 E교과서 분석 결과

E교과서의 경우 Language Check의 <Culture Tip>라는 코너를 통해서 고정적으로 문화내용을 지도하고 있다.

<표 7> E교과서의 단위 내 문화 내용 분석

Lessons	문화지도란 이름과 내용
Lesson 1	<Culture Tip>: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언어의 비율과 우리나라 말의 비율
Lesson 2	<Culture Tip>: 캐나다 학생들의 여가 생활 선호도
Lesson 3	<Culture Tip>: 영어에서 직업명의 변화 (예: fireman → fire fighter)
Lesson 4	<Culture Tip>: 미국의 동전의 종류와 명칭
Lesson 5	<Culture Tip>: 전자 우편 예절
Lesson 6	<Culture Tip>: 영자 신문 헤드라인의 특징
Lesson 7	<Culture Tip>: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적 차이
Lesson 8	<Culture Tip>: 우리가 외래어로 쓰고 있는 영어 어휘와 북한 어휘

Lesson 9	<Culture Tip>: 영어 숙답 풀이
Lesson 10	<Culture Tip>: 각 나라 특유의 음식 문화
Lesson 11	<Culture Tip>: 미국인들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벌이는 활동들
Lesson 12	<Culture Tip>: NGO에 대해서
부록의 문화 지도 내용	<잘못 쓰기 쉬운 한국식 영어>

E교과서의 문화지도란은 각 과에서 다룬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동일한 주제나 소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한 다음에는 반드시 활동을 해보도록 하고 있다. 분석 대상의 다른 교과서 가운데에서도 문화 관련 내용을 제시한 후 모둠 활동을 하도록 한 B교과서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연결된 교과서는 없었다. 특히 E교과서와 같이 매 과에 고정적으로 문화와 관련된 내용만을 주제로 하고 활동으로 연결한 교과서는 없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5종 교과서 가운데 E교과서의 문화지도란이 해당 코너의 성격과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E교과서는 부록에 문화 지도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소위 ‘콩글리쉬(Konglish)’라고 불리는 잘못 쓰기 쉬운 한국식 영어를 제시한 후 그 표현이 잘못 쓰이게 된 배경과 올바른 영어 표현을 제시해 주고 있다. 부록에 제시된 문화내용은 교과서의 후반부에 제시된 경우가 많아 수업 중 다루지기가 쉽지 않고 학생들의 관심을 덜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여 스스로 흥미를 느껴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좋을 것 같다. E교과서의 부록에 제시된 문화학습의 발전학습으로는 해당 주제가 한국학생들에게는 매우 흥미 있는 것이므로 개별적으로나 모둠별로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영어표현을 발견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도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분석 대상 5종 교과서에서 본문 이외에 별도로 다른 문화내용인 문화지도란과 부록에 제시된 문화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A교과서는 보충, 심화 부분에 속해 있는 ‘Additional Practice’라는 제목 하에 단원 마다 ‘Language Note’, ‘Culture Tip’, ‘Culture Note’란이 하나씩 있는데, 이중 ‘Culture Tip’과 ‘Culture Note’부분에서 각 단원의 본문과 관련된 문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12단원 중, ‘Culture Tip’과 ‘Culture Note’가 있는 단원은 두 단원뿐이고, 나머지 열 단원은 ‘Language Note’로 구성되어 있다. <Language Note>가 두 문화지도란을 보충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교과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문화지도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B교과서는 PART I·II가 끝나는 부분에 문화지도란이 PROJECT FILE I·II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문화지도란은 노래 가사 바꾸기 활동이고, 두 번째 것은 영미시를 산문으로 이야기해보는 활동이다. 두 활동 모두 영어 노래와 영미시라는 문화적인 산물을 영어학습에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한 모둠별로 함께 노래를 부르고 발표를 하도록 함으로써 문화학습을 협동학습과 접목시킨 점이 특이하다 하겠다. 그러나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문화지도란의 제시 횟수가 2회에 그친 것은 7차 교육과정의 목표를 교과서 개발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C교과서는 특별히 정해진 제목 없이 단원의 마지막 페이지마다 문화지도란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적인 소재라서 참신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보편적인 내용들이고 영미문화적 및 한국문화적, 기타 문화적 내용이 불균형적으로 제시되어, 문화 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문화 소개란을 통해 더 많은

문화 내용을 규칙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D교과서는 본문 외에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추가적으로 ‘English for Fun’이라는 일정한 코너를 통해 문화 내용을 보충해 주고 있다. 이 코너에서는 영어 유머, 영어 속담, 영시, 위인, 영화, 광고, 퍼즐, 명소 관련 수수께끼 등을 소개하고 있다. 매 단원마다 문화내용이 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코너를 이용해서 문화를 소개하기 때문에 문화학습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좋은 것 같다.

E교과서는 매 단원마다 Language Check에서 별도로 ‘Culture Tip’ 코너를 마련하여 주로 영어권의 문화를 비롯해서 기타 여러 나라의 문화를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만큼 다양하고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다. 규칙적으로 문화내용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문화 내용 제시가 아니라 간단한 활동을 곁들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문화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이상 본문 이외에서도 각 교과서마다 문화교육을 위해 별도의 문화 소개란을 마련하여 문화내용을 제시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각 교과서별로 문화지도란의 명칭, 내용, 특성 및 제시횟수가 다양한 것을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의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문화지도란과 부록의 문화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될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도 효과적인 문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각 교과서별로 문화교육을 위한 코너를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문화 지도 방법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분석

부산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에서 영미 문화 학습의 필요성과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영미문화 지도 코너 및 부록에 제시된 문화지도 내용의 영미 문화이해에 대한 효과 그리고 교실 수업에서 영미 문화 이해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영미 문화 지도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7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 항목 1. 영어 학습에 있어서 영미 문화를 배우는 것이 필요한가?
- 항목 2. 영미 문화에 관한 내용이 영어교과서에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생각하는가?
- 항목 3. 교과서 본문 외에 제시된 문화지도란 또는 부록에 제시된 문화 정보가 문화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항목 4. 교과서 맨 끝에 부록으로 제시하는 문화적인 내용이 문화이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항목 5. 문화적 내용을 응답자가 사용하는 영어 교과서의 단원별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과 연계하여 제시되어 있는 양상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어떠한 방법이 문화이해 교수와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 항목 6. 우리나라 교육 여건상 교실 수업에서 문화적 내용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항목 7. 교과서의 부록에 문화 지도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할 때 어떠한 방법이 문화이해에 효과적일까?

이 가운데 항목2~항목4은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영미 문화에 관한 내용에 대한 태도 및 인식”으로 묶어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 문화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때 영미 문화를 학습하는 것의 필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8> 영미 문화를 배우는 것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번호	설문 문항	빈도 (N=356)	백분율 (%)
1	영어 학습에 있어서 영미 문화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25	91.2

전체 응답자 중 90%가 넘는 학생들이 영미 문화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영미 문화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 상태임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다.

2.2 문화 내용에 대한 인식

우선 지금까지 영어교과서의 문화지도란과 부록의 문화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므로 본 설문조사에서도 영어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영어 문화에 관한 내용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교과서 본문의 문화적인 내용과는 별도로 분리되어 문화지도만을 목적으로 제시된 문화지도란과 부록에 제시되어 있는 문화내용이 영미 문화 이해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9>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영미 문화에 관한 내용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번호	설문 문항	빈도 (N=356)	백분율 (%)
2	영미 문화에 관한 내용이 영어교과서에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4	34.9
3	각 단원별로 별도로 제시된 문화코너 또는 부록에 제시된 문화정보가 문화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77	49.7
4	교과서 맨 끝에 부록으로 제시하는 문화적인 내용이 문화이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29	36.2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영미 문화에 관한 내용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을 묻는 통합 항목의 첫 번째 문항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미 문화에 관한 내용이 영어교과서에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35%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문화에 관한 내용이 영미 문화를 이해하고 영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크게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과서에 제시된 영미 문화에 관한 내용의 형태와 종류가 교과서별로 다양하나 문화 지도를 단독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만든 문화 지도란과 부록에 제시된 문화정보가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절반인 49.7%로 이러한 문화전담코너의 효용성에 대한 태도는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학생과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학생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36.2%의 응답자가 교과서 맨 끝에 부록으로 제시하는 문화적인 내용이 문화이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문

화코너와 부록의 문화정보에 대한 생각을 묻는 두 번째 항목보다 해당 항목의 응답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아 각 단위별로 별도로 제시되는 문화코너에 비해 부록에 제시된 문화적인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가 보다 더 부정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겠다.

이 결과를 통하여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서 영미 문화 학습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있으나 우리나라 영어 교육 실정상 영미 문화 학습의 도구로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문화 지도란과 영미 문화 관련 내용이 학생들의 이러한 강한 학습 동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약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부록에서 제시하는 문화적인 내용이 문화이해 학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번 연구대상으로 삼은 5종 교과서의 경우를 들어 보더라도 단 2종만 부록에 문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록에 문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의 경우에도 그 내용의 구성이 색인식 자료 나열 방식을 따르고 있었으며 분량도 매우 작은 편이라 실제 부록을 통한 문화 학습을 통해서 문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3 문화 학습 활동의 선호도 분석

해당 설문 문항들은 영어 교과서의 문화적 내용이 각 단위 내에서 영어의 4영역 활동과 연계하여 독립적으로 혹은 통합적으로 구성된 양상을 분류하여 구성되었다. 독립적인 듣기·말하기·읽기·쓰기 활동으로 분류한 후에는 통합적인 듣기와 말하기를 연계하여 제시한 활동, 듣기와 쓰기를 연계하여 제시한 활동, 쓰기와 말하기를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기타분류로는 부록에서 문제풀이 형태로 제시된 양상과 개인별·조별 Project 활동으

로 제시된 양상으로 분류하였다.

<표 10> 문화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양상에 대한 선호도 분석

번호	설문 문항	빈도 (N=356)	백분율 (%)
5-1	듣기 활동(문화적 내용이 포함된 그림이나 내용을 본 후 듣고 문제풀이)	245	68.8
5-2	말하기 활동(문화 관련 대화문을 짝과 함께 말해보기)	162	45.5
5-3	말하기 활동(문화 관련 내용을 조별로 토론한 후 학급 학생들에게 발표해보기)	139	39.0
5-4	읽기 활동(긴 글을 본격적으로 읽기에 앞서 짧은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하거나 설문지나 표를 완성해보기)	258	72.5
5-5	읽기 활동(긴 글을 읽기)	254	71.3
5-6	읽기 활동(긴 글을 읽은 후 Check-Up의 질문에 답하거나 표의 빈칸을 채우기)	260	73.0
5-7	쓰기 활동(요약문이나 단어지도를 완성하거나 자신의 말로 직접 써보기)	194	54.5
5-8	통합 활동(듣기와 말하기를 연계하여 제시)	227	63.7
5-9	통합 활동(듣기와 쓰기를 연계하여 제시)	227	63.8
5-10	통합 활동(쓰기와 말하기를 연계하여 제시)	204	57.3
5-11	부록의 진단평가·형성평가나 보충코너에서 문제풀이 과제로 제시	212	59.6
5-12	개인별 · 조별 Project 활동으로 제시	126	35.4

우선, 문화적 내용이 포함된 그림이나 내용을 본 후 듣고 문제를 풀어보

는 ‘듣기 활동’에 대한 선호도는 69%로 높은 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8번과 9번 항목의 통합 활동 항목에서 듣기와 연계하여 제시한 경우의 학생들의 선호도(약 64%)가 듣기가 연계하지 않은 경우(57.3%)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보아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선호하는 문화지도 양상으로는 ‘듣기’를 꼽을 수 있겠다.

둘째로 ‘읽기 활동’의 경우 3항목(5-4~5-6) 모두에서 70%의 응답률을 상회하여 학생들이 교과서 내 읽기 활동을 통해서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듣기 활동과 읽기 활동으로 제시된 문화지도양상을 선호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추측하여 보았다.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이해 기능(receptive skills)인 듣기와 읽기를 통해서 일정한 정도의 언어적 입력을 받은 후 표현 기능(productive skills)인 쓰기와 말하기를 시작하게 된다(김정렬, 2002).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고 있고, 아직까지 수용하는 기술을 통한 영어 학습과정이 필요한 단계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듣기와 읽기 활동을 통한 영미 문화 학습이 보다 익숙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판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말하기와 쓰기 활동을 통한 문화 학습에 대한 선호도는 저조한 편이었다. 특히 쓰기 활동보다 말하기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는데 짝과 함께 말해보는 활동은 45%의 응답률을, 조별로 토론한 후 학생들에게 발표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39%로 듣기·읽기·말하기·쓰기의 4가지 영역 가운데에서는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11번째 항목에서는 문화지도를 문제풀이를 통한 평가의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60%에 가까운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영미 문화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훌륭한 교재와 교사의 노

력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학생들은 영미 문화를 학습하는 방법으로 문화 내용이 문제로 제시된 것을 풀어보고 틀린 것은 풀이를 해보면서 교사나 친구 및 자료를 통해서 답을 찾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인 개인별·조별 Project 활동으로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35.4%의 학생들만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의도적으로 유발하여 이상적인 '학습'을 창출해 낼 것이라 기대하여 추천하고 싶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개인별·조별 활동을 통해 나온 결과를 정리하고 발표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들이는 노력과 시간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이러한 학습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2.4 문화 학습 지도 방법 선호도

해당 항목은 교과서외적인 영역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문화지도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다. 다시 말하면, 실제 수업 중의 활용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교육 여건상 교실 수업에서 문화적 내용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 후 학생들이 문화이해 학습에 도움을 준다고 느끼는 지도 방법을 고르도록 하였다. 총 17가지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었는데 이 가운데 처음 다섯 가지 항목은 전통적인 문화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항목은 문화지도로 주제로 다룬 논문에서 자주 언급된 방법을 참고로 하여 제시하였다.

17가지의 항목가운데 처음 다섯 가지 항목은 영어교육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문화지도방법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선호도가 50%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이는 이론상으로 완벽한 방법으로 화석화되었을지라도 실제

현장 교육에서 적용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결과로 보인다. 이는 현장교사들이 해당 지도 방법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적조한 데서 비롯되어 수업에 적용하는 횟수가 낮아져 학생들이 이러한 방법에 대한 친근감을 잘 느끼는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닌가하는 추측을 하게 된다.

<표 11> 교실 수업에서 문화적 내용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선호도 분석

번호	설문 문항	빈도 (N=356)	백분율 (%)
6-1	영어 문화에 관한 내용 중 오해나 혼동, 충격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읽은 후 문제를 제시하고 가능한 가상의 답 중에서 정확한 답을 찾아낸다. (<i>Culture Assimilator</i>)	211	59.3
6-2	문화와 관련된 주제가 들어있는 상자 속의 내용을 이해한 후 실제 장면을 연상하면서 모의 연극을 해 본다. 이후 토론을 하고 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다시 역할을 부여받아 연극을 해 본다. (<i>Simulation Games</i>)	153	43.0
6-3	교과서의 문화관련 대화문을 가지고 직접 그 상황을 연출해 본다. 연극의 각각의 막은 의사소통상의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막이 내릴 때마다 토론을 한다.(<i>Mini-Drama</i>)	155	43.6
6-4	문화 간 큰 차이를 나타내는 내용을 간단하게 기술한 다음, 그림 등의 시각적 자료를 이용하거나 행동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선생님이 던진 질문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며 토론이 진전된 후 그 문화내용을 전달하는 연극을 실시해 본다.(<i>Culture Capsule</i>)	194	54.5
6-5	특정 문화적인 요소들을 교사나 테이프의 명령을 듣고	177	49.7

	행한다. 학생은 교사의 지시를 들은 다음 그에 따른 교사의 반복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스스로 행동에 옮겨본다.(Audio-Motor Unit)		
6-6	팝송이나 영어문화권의 민요 등을 듣고 따라 부르거나 가사를 이해하려고 한다.	277	77.8
6-7	유머를 담고 있으며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문법 등을 학습할 수 있는 만화를 통해서 영어를 배운다.	295	82.9
6-8	영어의 속담을 통하여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태도를 배우고 한국 속담과의 비교를 통해 양국 간의 의식구조의 차이점도 설명해본다.	266	74.7
6-9	가장 최근의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인 신문이나 잡지 등에 실려 있는 문화적 내용을 구하여 읽어 본다.	270	75.8
6-10	필름, 슬라이드, 사진 등의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외국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소개받는다.	260	73.1
6-11	교실 내의 게시판으로 외국의 시사, 문화, 행사 등 전반적인 소식을 알게 되고 문화적 특질을 보여줄 수 있는 광고, 그림 자료, 속담이나 격언을 소개받는다.	202	56.7
6-12	수업 내용과 관련된 문화내용을 직접 인터넷을 통해 검색함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 동영상을 통해 생생한 문화현장을 경험한다.	214	60.1
6-13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이나 외부로부터 초청된 원어민으로부터 영어문화를 소개받거나 실제로 원어민과의 만남을 통해 문화를 더 잘 이해한다.	261	73.3
6-14	영어 사용자와 펜팔이나 키팔을 통해 편지를 써 봄으로써 직접적으로 문화를 체험하는 동시에 영어를 배운다.	235	66.0

6-15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여러 가지 반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순수한 회화능력을 개발시키는 역할을 해본다.	169	47.5
6-16	영화의 대사를 들으면서 영상을 통해 시각적인 효과를 얻고 감정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으며 영어를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간접경험 해본다.	241	67.7

학생들이 선호하는 문화지도방법은 문화 캡슐(Culture Capsule)과 같은 전통적인 영미 문화 지도 방법이 아니라 시청각적인 소재와 방법을 이용한 문화지도방법이었다.

6번부터 10번까지의 항목 모두 70%가 넘는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가운데 만화를 통해서 영미문화를 학습하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였다. 나머지 네 항목은 팝송이나 영미문화권의 민요 등을 듣고 따라 부르면서 가사를 이해하는 방법, 영미 문화권에서 일어난 가장 최근의 문화정보를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읽어보면서 문화를 학습하는 방법, 영어의 속담을 통해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태도를 배우고 우리의 속담과 비교하면서 문화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는 방법과 필름·슬라이드·사진 등의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외국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소개받는 방법의 순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이나 외부에서 초청된 원어민으로부터 영미 문화를 소개받거나 실제로 원어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문화를 학습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73.3%를 차지했다. 이는 학생들도 영미문화를 학습함에 있어서는 영미문화를 직접 체험한 원어민을 통한 학습이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일 것을 알고 기대한 반응으로 예상된다.

영어 사용자와 팬팔이나 키팔(key pal)을 통해 영어편지를 교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문화를 체험하는 방법(66.0%)과 영화를 감상하면서 영미 문화

를 간접 경험해보는 기회로 삼겠다는 응답(67.7%)이 그 뒤를 이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12번 항목(60.1%)의 수업에서 배운 문화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찾아보는 방법을 통해서 수업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더욱 심도 있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가운데 동영상 서비스로 제공되는 문화컨텐츠가 있다면 시청각 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영화를 통한 간접 경험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키팔을 통한 영어편지 교환 및 영화 감상, 그리고 70% 이상의 높은 선호도를 보인 6번부터 10번까지의 방법들은 모두 인터넷을 수단으로 하여 문화지도가 가능한 방법들이다. 따라서 12번 항목에서 학생이 직접 인터넷을 검색하여 문화관련 내용을 찾아서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이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6번부터 10번까지의 방법들을 사용하여 지도할 때 수업 자료의 출처를 인터넷에서 제공받게 되면 수업자료를 편집해야 하는 교사의 수고로움을 덜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이 끝난 후 복습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해당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반복적인 문화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5 단원 외에서 제시된 문화적 내용 분석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교과서 가운데 교과서의 부록에 문화적 내용을 제시한 교과서와 그렇지 않은 교과서가 있다. 본 설문 문항을 통해서 부록에 문화적 내용이 제시된 교과서의 경우는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 부록의 문화적 내용 구성을 보완할 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록에 문화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교과서의 경우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방식을 교과서 제작에 잘 반영하여, 부록의 내용도 잘 활용하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효과적인 문화지도와 학습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2> 문화이해에 도움이 되는 교과서의 부록에 제시하는 문화적 내용에 대한 선호도 분석

번호	설문 문항	빈도 (N=356)	백분율 (%)
7-1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적 내용을 내용별로 총괄적으로 제시한다.	216	60.7
7-2	단원 내용과 관련 있는 문화적 내용을 단원별로 설명 자료를 제시한다.	249	69.9
7-3	단원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을 단원별로 설명과 함께 그림 자료를 제시한다.	282	79.3
7-4	단원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을 단원별로 설명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를 제시한다.	177	49.7
7-5	교과 단원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다양한 문화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260	73.1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교과서의 부록에 제시하는 문화적 내용에 대한 선호도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단원 내용과 관련 있는 문화적 내용을 단원별로 설명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과 교과 단원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다양한 문화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이 각각 69.9%와 73.1%를 차지하였다. 단원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을 단원별로 설명과 함께 그림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79.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학생들은 부록에 제시하는 문화적 내용을 내용별로 총괄적으로 제시하는 방법보다는 각 단원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을 단원별로 제시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에서도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은 설명과 함께 그림이 제공되는 방법이 부록을 찾아보면 바로 해당 과에서 배운 문화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기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교과 단원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다양한 문화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도 73.1%의 응답을 보여 부록의 문화 내용은 교과서에서 다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다양한 영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평균비교를 위한 설문문항과 학교 간 유의관계 분석 결과

조사 대상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 간에 문화 지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학교 간 학생들의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보았다.

통계 분석 결과 우선 우리가 사용한 설문지의 전체 신뢰도는 0.8736으로 신뢰도는 높은 편이었다. 또한 설문지 항목가운데 두 가지 변수인 ‘문화적 내용이 현재 사용 중인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단원별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활동과 연계하여 제시되어 있는 양상(이하 B요인)’과 ‘실제 수업 중의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교육 여건상 교실 수업에서 문화적 내용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하 C요인)’ 각각의 신뢰도는 0.7589와 0.8644였다.

3.1 학교 간 평균 분산 분석

설문조사를 실시한 5개 학교의 학생들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문지의 B요인과 C요인에 대하여 평균 분산 분석을 ANOVA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학교 간 평균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3> 학교 간 학생들의 인식 차이 분석

요인	자료출처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유의수준
B요인	집단간	279.551	4	69.888	2.864	0.023*
	집단내	8563.978	351	24.399		
	Total	8843.528	355			
C요인	집단간	887.082	4	221.770	3.697	0.006*
	집단내	21052.657	351	59.979		
	Total	21939.739	355			

* $p < .05$

학생들의 인식 차이 결과, B요인 · C요인과 학교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어떤 학교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후 검증 분석(Post Hoc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사후 검증 분석(Post Hoc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4> 사후 검증 분석 결과

요인	학교	학교	평균차이	표준오차	유의수준	자유도	
						Lower Bound	Upper Bound
B요인	S고교	D고교	-1.48	0.829	0.528	-4.05	1.09
		B고교	-2.85*	0.844	0.024	-5.47	-0.24

C요인	B고교	N고교	-1.42	0.808	0.543	-3.92	1.08
		Y고교	-1.33	0.844	0.647	-3.95	1.28
		S고교	2.85*	0.844	0.024	0.24	5.47
		D고교	1.37	0.838	0.612	-1.22	3.97
		N고교	1.43	0.818	0.548	-1.10	3.97
		Y고교	1.52	0.853	0.529	-1.12	4.17
	S고교	D고교	-2.99	1.300	0.262	-7.01	1.04
		B고교	-4.74*	1.324	0.013	-8.84	-0.64
		N고교	-2.61	1.268	0.377	-6.53	1.32
		Y고교	-3.89	1.324	0.073	-7.99	0.21
	B고교	S고교	4.74*	1.324	0.013	0.64	8.84
		D고교	1.75	1.315	0.776	-2.32	5.83
		N고교	2.13	1.283	0.598	-1.84	6.11
		Y고교	0.85	1.338	0.982	-3.29	4.99

* $p < .05$

B요인과 C요인에 있어서 S고교와 B고교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학교 간에 이러한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하는 원인은 해당 설문조사의 결과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자세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항목을 만들어 새로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를 추측해본다면 두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문화내용의 제시 방법, 제시 횟수, 제시된 내용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원인과 각 학교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와 영어 실력의 차이점등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두 학교가 같은 학군에 속해 있는 남녀공학 고등학교라는 환경적인 요인과 학교 간 학생들의 학습 수준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상과 같이 영어교과서의 문화지도란과 부록의 문화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해당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내용에 대한 선호도와 추가적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방법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문화내용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았다.

영어교과서의 문화지도란과 부록의 문화내용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와 함께 해당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앞으로 나올 새로운 교과서의 문화내용 편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마지막 설문 분석으로 설문문항과 학교 간 유의관계 비교의 결과 두 학교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하는 보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설문문항으로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V. 결론과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한국과 같은 EFL 상황에서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배워야 하는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자 하였고,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문화적인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교과서에 문화적인 내용이 제시된 형태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과서에 제시된 방법 외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문화학습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분석 대상 5종 교과서에서 다룬 문화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A교과서는 ‘Language Note’, ‘Culture Tip’, ‘Culture Note’라는 문화지도란을 통해서 문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Language Note’ 코너가 두 문화지도란을 보충해주면서 제7차 교육과정의 문화지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B교과서는 PROJECT FILE I · II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두 활동 모두 영어 노래와 영미시라는 문화적인 산물을 영어 학습에 이용하고 있다.

C교과서는 특별히 정해진 제목 없이 단원의 마지막 페이지마다 문화지도란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적인 소재로 구성되어 있으나 다양한 문화적 내용이 불규칙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문화 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문화 소개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D교과서는 ‘English for Fun’이라는 일정한 코너를 통해 문화 내용을 보충해 주고 있다. 매 단원마다 문화내용이 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코너를 활용해서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E교과서는 매 단원마다 'Culture Tip'코너를 마련하여 규칙적으로 문화 내용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문화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영어교과서를 쓰고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영어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영어 학습과 관련된 문화적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영어 학습에 있어서 영미 문화를 배우는 것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영미 문화를 배우는 주교재인 영어교과서에 영어 문화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학생들은 영어교과서에 듣기·말하기·읽기·쓰기 활동과 연계하여 제시되어 있는 문화적 양상가운데 듣기와 읽기 활동을 통하여 문화를 배우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 여건상 교실 수업에서 문화적 내용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팝송이나 영미문화권 민요를 듣고 따라 부르기, 유머를 담고 있는 영미문화권 만화를 통해서 문화 배우기, 영어의 속담 배우기,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문화 소식 접하기,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외국문화 알아보기, 원어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영미문화를 소개받기, 이메일이나 펜팔을 통해 직접적으로 문화를 체험하기, 영화의 대사를 들으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간접경험 해보기가 있었다.

평균비교를 위한 설문문항과 학교 간의 유의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문항과 학교 간 유의관계를 비교한 결과 두 학교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되었다. 이는 두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문화내용의 제시 방법, 제시 횟수, 제시된 내용 등의 차이점에서 비롯된 원인과 각 학교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와 영어 실력의 차이점등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하는 보다 정확한 원인 파악은 새

로운 설문문항으로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제 7차 교육과정의 12종 교과서를 연구 분석 대상으로 삼지 못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의 대상이 고등학생에 국한되어 현장에서 문화 지도를 직접 담당하는 교사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문화 지도와 관련한 많은 연구를 통해서 행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문화지도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이 원하는 문화지도 교육의 내용과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 문헌

- 강민숙. (2004).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에 반영된 문화 분석. 석사학위 논문: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 곽정순. (1992).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문화적 소재 분석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교육부. (2000). 고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 - 외국어(영어). 서울: 대한교과서.
- 권진경. (2002). 영어교과서 문화내용 분석 -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택기. (1999). 영어교육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연선. (1987).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과 중학교 영어교과서 내용분석. 석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숙 외 5인. (1999). 영어과 교육론. 서울: 한국문화사.
- 김은조. (2002). 고등영어 교과서의 문화내용 분석 - 제 7 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렬. (2002). 영어 교육론. 서울: 한국문화사.
- 김정희. (2002).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영미 문화 분석 - 고1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김훈. (2001).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문화내용 분석.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상욱. (1982). 문화교육의 의의와 방법의 문제점. 영어교육 23호
- 박순복. (1988). 고교 영어교재의 문화내용 분석.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영신. (2004). 제 7 차 교육과정에 근거한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문화적 내용 분석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배두본. (1990). 영어교육학 서울: 한신문화사.
- 배영자. (1981). A Cultural Syllabus For Korean Students.
- 배은숙. (2002). 영어교육을 위한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유진. (2002).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영미문화 분석 -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의갑. (2005). *영어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방향*. "영어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 새 영어교육과정 정립을 위한 모색"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와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 주최 2005 여름 학술대회 및 정기 총회.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호진. (2001). 영어교육에 있어서 영미문화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장신재. (1999). 2언어 학습과 교육: 영어를 어떻게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 서울: 신아사.
- 정정인. (2003).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문화내용 분석 -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안나. (1999). 문화에 근거한 영어교육 방법론.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채보준. (1997).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문화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경란. (2004). 영어교육에 미치는 영미문화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기봉. (1999).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영미 문화 분석*.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용재. (1995). Culture as a background knowledge in TEFL. *영어교육* 50호, 24-31.
- 한을수. (1987).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영·미 문화의 내용분석*.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허봉옥. (2004).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문화 내용 분석*. 석사학위 논문: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현기. (1998). *영어교육에 있어서 문화지도의 중요성*.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Alptekin, C. (1993). *Target-language culture in EFL materials*. *ELT Journal* 47, 135-143.
- Brooks, N. H. (1975). *Language and Language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NY: Hartcourt, Bruce and World
- Brooks, N. H. (1975). The analysis of language and familiar cultures. In R. Lafayette (Ed.), *The cultural revolution* (pp. 20-21).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Company.
- Brown, H. D. (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2nd ed. NJ: Prentice Hall Regents.
- Brown, H. D. (2001).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 NJ: Prentice Hall Regents.
- Byram, M. (1989). *Cultural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Clevedon, PA: Multilingual Matters.
- Byram, M. (1997).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Byram, M., & Fleming, M. (1998). *Language learning in intercultural perspective: Approaches through drama and ethnogra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yram, M., & Zarate, G. (1994). *Definitions, objectives and assessment for socio-cultural objective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 Damen, L. (1987). *Culture Learning: The Fifth Dimension in the language classroom*. Reading, MA: Addison-Wesley.
- Dunnett, C., Dublin, F., & Lezberg, A. (1986). English Language Teaching From an Intercultural perspective. In Joyce, M. Valdes (Ed.), *Culture Bou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M. S. (1987). *Culture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Doctoral Dissertation.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Kramsch, C. (1993). *Context and culture in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ramsch, C. (1998). *Language and cul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vine, D. R., & Mara B. Adelman. (1993). *Beyond Language: Cross-cultural Communication*.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Regents.
- Nunan, D. (1991).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A textbook for teachers*. Hemel Hempstead, UK: Prentice Hall.
- Hadley, A. D. (2001). *Teaching language in context*. 3rd edition Boston, MA: Heinle & Heinle Publishers.
- Seelye, H. N. (1984).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Company.

Seo, H. S. & Park, M. R. (2003). Presentation Types of Cultural Contents in EFL Textbooks and Students' and Teachers' Reflection. *English Language Teaching*, 15(4), 141-168.

Park, M. R. & Suh, K. O. (2003). An analysis of Korean high school textbooks under the 7th curriculum. *English Teaching*, 58(4), 319-347.

<분석 대상 교과서 및 설문 대상 고등학교 목록>

교과서	설문 대상 고등학교	저자(출간년도)	교과서명 및 출판사
A교과서	신도고등학교	김덕기외 5인(2002)	「High School English」 . 서울: 금성출판사
B교과서	다대고등학교	이기동 · 이정화 · 구은영 · Sybil Bakers(2002)	「High School English」 . 서울: 능률영어사
C교과서	남일고등학교	이찬승 · 김혜영 · 박영결 · 김명주 · Thomas R. Field(2002)	「High School English」 . 서울: 능률영어사
D교과서	부흥고등학교	임병빈 · 강용구 · 연준흠 · 유철 · 송해성(2002)	「High School English」 . 서울: 장원교육
E교과서	예문여자고등학교	이홍수 외 5인(2002)	「High School English」 . 서울: 한국교육미디어

부 록

설문지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영어 학습과 관련된
문화적 내용분석을 위한 설문지”

■ 다음 각 문항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시해 주십시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항 목		1	2	3	4
1	영어 학습에 있어서 영어 문화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영어 문화에 관한 내용이 영어교과서에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각 단원별로 별도로 제시된 문화코너(예: Culture Tip, Culture Note, English For Fun) 또는 부록에 제시된 문화정보가 문화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	교과서 맨 끝에 부록으로 제시하는 문화적인 내용이 문화이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아래는 문화적 내용이 현재 사용 중인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단원별로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 활동과 연계하여 제시되어 있는 양상을 열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각 방법이 문화이해 교수와 학습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듣기 활동(문화적 내용이 포함된 그림이나 내용을 보거나 듣고 문제풀이)				
	2) 말하기 활동(문화 관련 대화문을 짝과 함께 말해보기)				
	3) 말하기 활동(문화 관련 내용을 조별로 토론한 후 학급 학생들에게 발표해보기)				

	4) 읽기 활동(긴 글을 본격적으로 읽기에 앞서 짧은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하거나 설문지나 표를 완성해보기)				
	5) 읽기 활동(긴 글을 읽기)				
	6) 읽기 활동(긴 글을 읽은 후 Check-Up 의 질문에 답하거나 표의 빈칸을 채우기)				
	7) 쓰기 활동(요약문이나 단어지도를 완성하거나 자신의 말로 직접 써보기)				
	8) 통합 활동(듣기와 말하기를 연계하여 제시)				
	9) 통합 활동(듣기와 쓰기를 연계하여 제시)				
	10) 통합 활동(쓰기와 말하기를 연계하여 제시)				
	11) 부록의 진단평가 · 형성평가나 보충코니(예: Self-Study, Review, On Your Own, Supplementary Learning, Advanced Learning)에서 문제풀이 과제로 제시				
	12) 개인별 · 조별 Project 활동으로 제시				
	실제 수업 중의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교육 여건상 교실 수업에서 문화적 내용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열거한 것입니다. 다음 각 방법이 문화이해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영어 문화에 관한 내용 중 오해나 혼동, 충격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읽은 후 문제를 제시하고 가능한 가상의 답 중에서 정확한 답을 찾아낸다.				
6	2) 문화와 관련된 주제가 들어있는 상자 속의 내용을 이해한 후 실제 장면을 연상하면서 모의 연극을 해 본다. 이후 토론을 하고 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다시 역할을 부여받아 연극을 해 본다.				
	3) 교과서의 문화관련 대화문을 가지고 직접 그 상황을 연출해 본다. 연극의 각각의 막은 의사소통상의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막이 내릴 때마다 토론을 한다.				
	4) 문화 간 큰 차이를 나타내는 내용을 간단하게 기술한 다음, 그림 등의 시각적 자료를 이용하거나 행동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선생님이 던진 질문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며 토론이 진전된 후 그 문화내용을 전달하는 연극을 실시해 본다.				
	5) 특정 문화적인 요소들을 교사나 테이프의 명령을 듣고 행한다. 학생은 교사의 지시를 들은 다음 그에 따른 교사의 반복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스스로 행동에 옮겨본다.				
	6) 팝송이나 영어문화권의 민요 등을 듣고 따라 부르거나 가사를 이해하려고 한다.				
	7) 유머를 담고 있으며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문법 등을 학습할 수 있는 만화를 통해서 영어를 배운다.				
	8) 영어의 속담을 통하여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태도를 배우고 한국 속담과의 비교를				

7	통해 양국간의 의식구조의 차이점도 설명해본다.				
	9) 가장 최근의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인 신문이나 잡지 등에 실려 있는 문화적 내용을 구하여 읽어 본다.				
	10) 필름, 슬라이드, 사진 등의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외국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소개받는다.				
	11) 교실 내의 게시판으로 외국의 시사, 문화, 행사 등 전반적인 소식을 알게 되고 문화적 특질을 보여줄 수 있는 광고, 그림자료, 속담이나 격언을 소개받는다.				
	12) 수업 내용과 관련된 문화내용을 직접 인터넷을 통해 검색함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 동영상을 통해 생생한 문화현장을 경험한다.				
	13)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이나 외부로부터 초청된 원어민으로부터 영어문화를 소개받거나 실제로 원어민과의 만남을 통해 문화를 더 잘 이해한다.				
	14) 영어사용자와 펜팔(pen-pal)이나 키팔(key-pal)을 통해 편지를 써 봄으로써 직접적으로 문화를 체험하는 동시에 영어를 배운다.				
	15)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여러 가지 반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순수한 회화능력을 개발시키는 역할극(role-play)을 해본다.				
	16) 영화의 대사를 들으면서 영상을 통해 시각적인 효과를 얻고 감정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으며 영어를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간접경험 해본다.				
	17) 기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이 있으면 기록해 주십시오. ()				
	만약 교과서의 부록에 문화적 내용을 제시한다면, 다음 각 방법이 문화이해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적 내용을 <u>내용별로 총괄적으로</u> 제시한다.				
	2) 단원 내용과 관련 있는 문화적 내용을 <u>단원별로 설명 자료</u> 를 제시한다.				
	3) 단원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을 <u>단원별로 설명과 함께 그림 자료</u> 를 제시한다.				
	4) 단원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을 <u>단원별로 설명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u> 를 제시한다.				
	5) 교과 단원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u>다양한 문화적인 내용</u> 을 제시한다.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에 감사드립니다.